

베일 벗는 ‘갤S22’... “혁신의 기준 새로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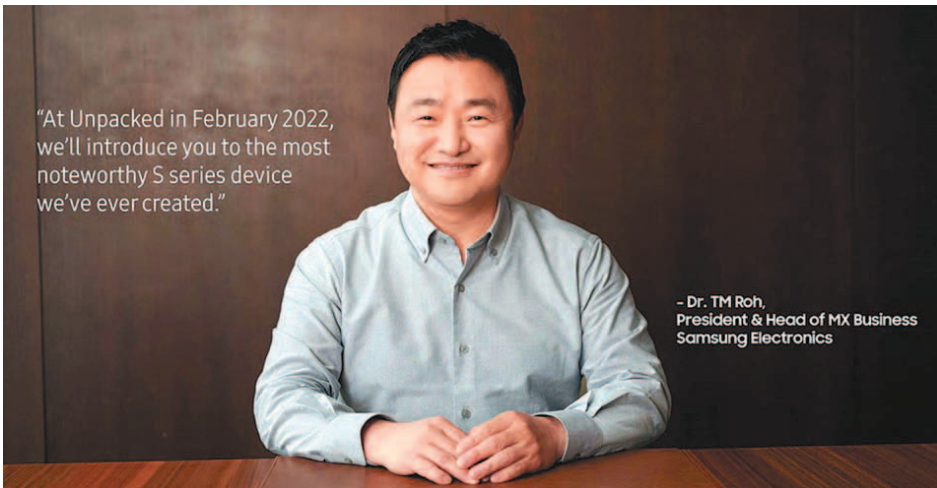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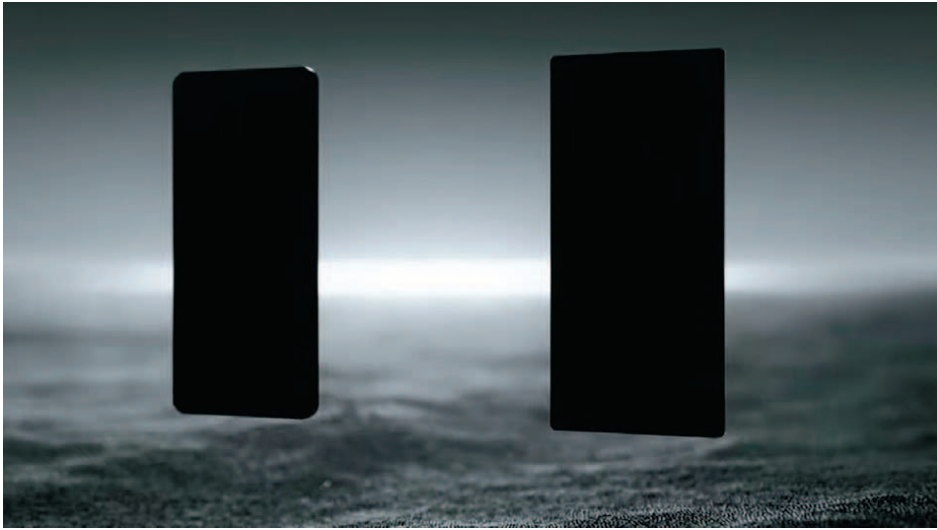
노트의 ‘S펜’ 품은 울트라 모델 주목
“역대 S 시리즈 중 가장 주목 받을 것”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8.9%
애플·샤오미 따돌리고 1위 굳히기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락 스마트폰 ‘갤럭시S22’가 공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2월 ‘갤럭시 언팩’을 공식화하면서,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업계는 특히 ‘S’ 시리즈에 ‘노트’ 시리즈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힘겹게 지켜낸 삼성전자가 새 제품으로 왕좌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월 초 ‘갤럭시S22’ 공개

삼성전자는 내달 신제품 공개행사(갤럭시 언팩)를 열고, ‘갤럭시S22’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9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사전 예약과 정식 출시도 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노태문 사장은 21일 ‘또 한 번 한계를 넘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다음 달 갤럭시 언팩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갤럭시S 시리즈는 스마트폰 카테고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을 선보여 왔으며, 지금 그 혁신의 기준을 다시 써 내려가고자 한다”며 “다음 달 공개하는 신제품은 최고의



최근 공개된 ‘갤럭시S22’ 예고영상(위)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사진출처 | 삼성전자 뉴스룸

모바일 경험을 한데 모은 제품으로서,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은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자신 있게 촬영할 수 있으며, 강력한 배터리와 실행 속도, 유용한 기능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신제품을 소개했다.

●노트 특징 반영한 울트라 모델 관심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2 시리즈는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등 3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최상위 모델 ‘울트라’다. 이 제품은 각진 모서리에 ‘S펜’을 내장하는 등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21일 공개한 갤럭시 언팩 예고 영상에도 둥근 모서리와 각진 모서리를 가진 두 개의 스마트폰이 합쳐지는 장면이 나온다.

노태문 사장도 기고문에서 “지난해 새로운 갤럭시노트를 출시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다. 갤럭시노트와 S펜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에 열광하는 팬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에 지난해 하반기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실망했던 노트 팬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임장에서 이번 제품의 흥행 여부는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성장면에선 경쟁사에 비해 뒤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8.9%의 점유율(소매판매량 기준)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애플의 점유율은 17.2%였다. 샤오미는 13.5%의 점유율로 연간 기준 처음 3위에 올랐다. 뒤는 오포(11.4%)와 비보(9.6%)가 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20년 대비 판매 증가율이 0.9%에 그쳤다. 반면 2~5위 업체들은 20~3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애플은 25.5%, 샤오미는 35.1%, 오포는 32.8%, 비보는 25.2%를 기록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네이버, 상반기 완공 ‘제2사옥’ 조감도 공개



네이버 제2사옥 조감도.

네이버는 상반기 완공을 앞둔 제2사옥의 조감도를 최근 공개했다. 현재 시설 내 기술 점검을 진행할 네이버랩스 등 일부 조직이 먼저 이동을 완료한 상태다. 제2사옥에는 임차 종료된 외부 사업장의 일부 조직,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 그리고 카이스트-

네이버 AI 센터 연구진 등 네이버 뿐 아니라 외부 파트너들도 입주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SME(중소사업자), 창작자 등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해 더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업무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경험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우려 없이 사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특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 내달 개막 동계올림픽 생중계

아프리카TV는 2월 4일 개막하는 ‘제24회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생중계한다. 총 15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를 비롯한 주요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공식 방송 시청 인증 이벤트, 대한민국 대표팀 올림픽 최종 순위 및 금메달 획득 개수 맞추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의 출전 경기 다시보기와 하이라이트 VOD(주요경기비디오)는 아프리카TV 스포츠 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장기 고객 50% 할인 이벤트

SK브로드밴드는 장기 이용 고객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호호 이벤트’를 6월까지 진행한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3년 이상, 셋톱박스는 동일 모델을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셋톱박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이 스마트 3, AI스피커형, AI 사운드 맥스 등 최신 셋톱박스로 업그레이드하면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B tv를 3년 이상 이용한 고객은 더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초고속인터넷 업그레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00M 광랜 인터넷을 3년 이상 이용 중인 고객이 월 2200원만 추가하면 500M Giga라이트+GigaWiFi 상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통신 3사 ‘상생 실천’...설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SKT·KT·LG유플러스 동참

통신 3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등과 함께 1100여 개 중소 협력사와 전국 270여 개 대리점 등에 약 85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원 SK텔레콤 코퍼레이트 플래닝 담당은 “팬데믹 장기화로 힘든 사업 환경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T그룹도 756억 원 규모의 파트너사 납품 대금을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에는 KT스카이라이프, KT DS, KT 알파, KT 엔지니어링, 이니텍 등 5개 계열사도 동참한다. 조훈 KT SCM전략실장(전무)은 “KT는 향후에도 ESG 경영 차원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파트너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는 상생 노력을 지속해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2000여 중소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30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김종섭 LG유플러스 동반성장/구매담당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파트너사들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LG 클로이 가이드봇’ 대구 지하철서 시범운영
LG전자 안내로봇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고객을 맞는다. LG전자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 1대를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사진제공 | LG전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24일 (월) 음력: 12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사랑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길하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매사 자신있게 행하라.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제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전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의견상의 화해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떤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건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관재수를 조심하라.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협력을 구하라.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 한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5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